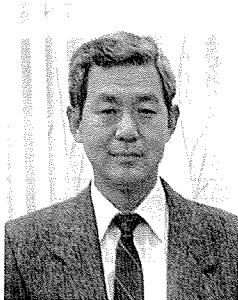


조국의 과학선진화에 다함께 참여해야

朱 學 允

〈재캐나다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
NOVA SCOTIA 주립농과대학 교수〉



해외 科技協과 긴밀유대를…

금년은 특히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에서 추진하는 Brain Pool 사업을 위해 재외 한국기술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받고 있다. 벌써 제1차 사업이 끝나고 제2차 사업계획을 마감하고 있다. 과총에서 수립한 Brain Pool 사업계획을 보면 모두 첨단 과학기술에 필요한 훌륭한 연구과제들이다. 고국의 당면문제인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2000년대를 향해 기술선진국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 과학자들의 목표가 실현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조국의 과학기술 진흥은 기초과학의 토대가 있어야 하고 기초과학 육성과 지원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초과학 지원은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Brain Pool 사업이 조국의 과학진흥과 국력신장에 첨경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Brain Pool 사업이 계속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원하며 본 사업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과총이 더욱 번창하고 해외과학자들과 더욱 긴밀한 유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한민족 科技학술대회 역할에 기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rain Pool 사업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본 몇 가지 용이치 않은 점들을 생각해 볼때

첫째로, 대부분의 캐나다 과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들이 각 연구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2년간 연구실을 비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참여는 어렵겠지만 안식년 휴가(Sabbatical Leave)나 단기간 참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경륜을 쌓고 첨단과학 및 산업분야에서 공헌을 한 은퇴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캐나다의 이민 역사로 보아 지금 현재로 자연과학계통에서 은퇴하는 과학자 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엔 조기명예퇴직(Early Retirement Plan) 등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제별로 국내외 과학자들간에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정부에서 보조하는 Matching Fund 이용이 가능하므

로 공동연구가 실현이 된다면 한국정부의 재원을 절약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공동연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국내외의 첨단과학에 종사하는 각계 과학자들이 서로의 연구활동 결과와 상황을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목적을 위해서도 과총에서 주관하는 「세계 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의 역할에 더욱 큰 기대를 걸게 된다.

국내외 과학자교류 활성화

그러나 학술대회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해외과학자들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각자의 전문분야 해당 연구 기관이나 대학을 찾아 연구정보를 교환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Brain Pool 사업은 한국 과학산업의 선진국대열에의 참여는 물론 지속적인 기초연구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학술정보 교환과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축구하기 위해서도 동일 계통에서 연구하는 국내외 과학자들이 특별전문분과별로 함께 모여 구체적인 연구발표와 토론을 하고 연구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지난 9월 26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기협 대표들이 모여 조국의 '선진과학기술 창조'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하여 우수한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다짐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Brain Pool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협력하므로써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3차 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은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해외과학협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에 기인함은 물론이려니와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활동을 권장하고 격려하며 치밀한 계획아래 헌신적인 노력과 현명한 지도력으로 공동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과총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지적하고 싶고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통일대비 북한정보 파악도

세계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남북한의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아 느껴진다. 통일을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특별한 노력도 현저하게 보인다. 그러나 통일 후의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북한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과학산업의 현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외는 물론 북한과학자들과의 과학정보를 주고 받기위한 유대관계가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과학자들도 북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제공 및 해외 지원기관을 이용한 경제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찾아 보아야 하겠다.

캐나다 정부에는 저개발 국가들의 기술이전을 위한 CIDA(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와 같은 기구가 있으며 이같은 경제적인 후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솔선적인 추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추진이 있기를 부탁하며 과총에서 추진하는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도 시급하므로 적절한 방안이 수립되길 고대한다.

과총을 운영해 나가는 임직원들의 선견지명과 그들의 애국적인 호소에 해외의 한과학자로서 적극 동참하고 싶다. ST